

ASEAN+3 여성과 빈곤철폐에 관한 인간안보 심포지움

- 참가 보고서 -

김안나(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ASEAN+3 여성과 빈곤철폐에 관한 인간안보 심포지움(ASEAN +3 Human Security Symposium on Women & Poverty Eradication) 참석
- 기간 및 장소 : 2007. 7. 5(목)~7(토), 일본 도쿄 뉴오타니 호텔 및 일본 도쿄 UN대학
- 회의주체조직 구성:
 - 일 외무성 : Mr. Hiroshi NAWATA (아시아태평양지역정책과, 과장)
Ms. Minori ISHII (아시아태평양지역정책과, 사무관)
Ms. Hiroko SHIMAKAWA (아시아태평양지역정책과, 사무관)
 - AHRW(Association for Human Rights of Women)
Ms. Makiko ARIMA (이사장)
Ms. Mizuho MATSUDA (상임이사, 사무국장)
- 참가자
 - ASEAN+3: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한국, 중국, 일본
 - 참가국제단체: UNESCAP, ATD 4th World, ASEAN 사무국
 - 한국측 참가자: 여성가족부 재정기획팀장 이기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안나
 - 그 외 일본 외무성, JICA, 마이크로소프트 등 참가

□ 심포지움 개요

- ASEAN+3 여성과 빈곤철폐에 관한 인간안보 심포지움은 일 외무성과 일본 정부의 후원을 받는 여성인권협회(AHRW), 요미우리 신문이 주최하고 일본 ASEAN 통합기금(Japan ASEAN Integration Fund)의 지원을 받은 회의로, ASEAN 여성의 현실과 빈곤실태를 점검하고, 인간안보(Human Security)의 관점에서 여성 빈곤철폐 방안을 논의함.
- 당 심포지움은 ASEAN 10개국과 한중일 3국의 정부, 비정부 기구가 참가했으며, ASEAN 사무국, UNESCAP등 국제기구가 참가해 7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됐음.
- 국가보고서(country report)형식을 통해 한국의 여성빈곤실태와 여성빈곤정책 소개

□ 상세일정

구분	7.5(목)	7.6(금)	7.7(토)
오전 9시 30분~ 12시 3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회 ○ 빈곤의 여성화, 원인, 영향과 철폐 - UNESCAP, ASEAN 국가 일부 국가보고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빈곤 감소 전략 - 한중일 국가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 회 식 ○ 기 조 연 설 - 무하마드 유누스(그라민 은행 총재)
오 후 2시~6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EAN 국가 내 여성의 현실 - ASEAN 국가 일부, ATD 4th World 국가보고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빈곤철폐 우수사례 ○ 빈곤철폐를 위한 권고문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패 널 토 의 I - 사회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일본의 사례 ○ 패 널 토 의 II - 아시아 빈곤의 여성화-철폐전략 ○ 폐 회 식

□ 심포지엄 주요 의제

- 의제 1. ASEAN의 여성의 현실, 빈곤의 여성화
 - ASEAN 각국의 여성의 현실을 파악하고,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과 영향 대해 논의
 - 각국의 경험과 현실의 공통점을 찾고, 해결성공사례를 통해 빈곤철폐방안을 논의
 - 각국 국가보고(Country Report) 약 20분 소개

- 의제 2. +3(한국, 중국, 일본) 여성의 현실, 빈곤의 여성화
 - 한중일 여성의 현실을 파악하고, 빈곤의 여성화의 원인과 영향 대해 논의하고 절대빈곤을 넘어선 나라들의 빈곤정책에 대한 논의
 - 주최국인 일본의 경험을 외무성, JICA에서 발표
 - 각국 대표 발언은 30분 정도로 진행

- 의제 3. 여성 빈곤철폐를 위한 권고사항(Recommendation) 제안서 작성
 - 각국의 경험과 현실의 공통점을 찾고, 해결성공사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빈곤철폐를 위한 권고사항을 문서화해 제안

2. 심포지엄 주요 내용

□ 주요 국가 보고

○ 전반적인 논의사항

- 절대빈곤에 시달리는 많은 수의 ASEAN 국가들은 경제 교육 등의 여러 분야에서 남녀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 지역 내 빈곤철폐를 위해서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경제참여가 핵심역할을 할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성공사례를 발표함
- 한국, 일본과 같이 경제적인 성취를 이룬 국가들은 절대빈곤 탈출 이후에도 일정부분 지속되는 빈곤의 여성화와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 ASEAN +3의 지도적 역할을 요구

○ 브루나이

- 거의 모든 부문에서 남녀평등이 실현되었고, 여성이 남성보다 빈곤에 처한 경우가 더 적은 나라임을 밝힘 (13개 참가국 중 유일함).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난 원동력으로 1)복지정책, 여성관련 NGO지원, 여성을 폭력에서 보호하기 위한 특별정책 제정, 교육지원, 경제활동지원 등을 꼽음

○ 캄보디아

- 1인당 GDP가 360 USD에 불과하고, 총인구의 35%가 절대빈곤층인 국가임. 따라서 단지 여성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빈곤 문제가 심각하며, 현재 전반적으로 생산활동의 원천이 되는 토지, 자본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고, 부가적으로 교통, 통신, 보건 등 인프라의 문제가 있음. 여성은 부족한 자원에서 남성보다 더욱 소외됨. 거시, 미시적 수준에서 빈곤탈출계획이 시행되고 있음: 경제 지역발전을 위해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고, 특히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략적 개발계획(National Strategic Development Plan 2006-2010)이 주목할만함. Private Sector 수준에서도 여성의 역할과 역량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활발함.

○ 라오스

- 라오스는 절대빈곤률을 2005년까지 8년 동안 절반인 22%로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빈곤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특히 빈곤에 시달리는 층이 특정 부족(ethnic group)에 속했거나 여성이라는 점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 여성들은 가사 외 다른 경제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제한적이며 교육을 받을 기회도 드물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성장과 차별철폐 전략” 등을 추진함.

○ 미얀마

- 미얀마는 전통적으로 부(富)보다 행복을 중요시하고, 남녀지위가 크게 다르지 않은 국가임. 현재 빈곤의 원인으로 열악한 교육, 교통문제, 자본부족 등을 지적. 특히 대대로 가업을 잇는 사회구조도 경제발전이 느린 원인. 전반적인 빈곤철폐 노력 외에 2005년에 여성 인간안보를 목적으로 인신매매금지법(The Anti-Trafficking in Persons Law)를 제정.

○ 베트남

- 10년 전, 인구의 절반 이상이 1년에 309 USD로 생계를 유지했으나 최근 20년간 진행된 경제개혁과 고도의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변화를 겪었음. 그러나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6-8시간을 더 노동에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종류가 열악해 여전히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임.
- 도농간 경제격차가 매우 큼. 고등교육 포기율이 높고, 사적 고리대금을 이용하는 것도 빈곤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힘든 원인이 됨.
- 국가기구(National Organization)인 베트남여성연합(Vietnam Women's Union)은 약 천삼백만명이 가입한 잘 조직된 지역네트워크(grassroot network)를 바탕으로 소액대출 등 여러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특히 빈곤철폐의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음.

○ 인도네시아

- 최근 30년 동안 40%에 달하던 빈곤층을 2006년 17.75%까지 줄이는 데 성공했음. 여성의 임금수준은 남성의 46%에 불과하며, 여성 문맹률이 남성의 2-3배에 불과한 등 여성이 소외된 측면이 존재. 지역간 격차도 매우 큼. 정부는 위원회, 법제정, 국민권익강화 프로그램(National Programme on People's Empowerment)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말레이시아

- 예전보다 높은 삶의 질을 영유하고 있으나 도농간 수입불균형은 여전히 높아 빈곤층의 70%가 농촌에 거주. 자본, 교육 등의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빈곤해결의 기초라고 여김. 남성이가구주의 3.8%가 빈곤층인데 비해, 여성가구주의 12.5% (2002)가 빈곤층으로 빈곤의 여성화 문제가 존재. 그러나 여성가구주의 빈곤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 특히 농촌거주 여성을 위한 경제참여 프로그램들 (소규모 고무산업 참여 등)이 정부에 의해 제안됨.

○ 필리핀

- 절대빈곤과 싸우는 국가 중 하나로, 하루에 1 USD 미만으로 삶을 영위하는 인구가 1800만이며 이 중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아 “빈곤은 여자의 얼굴을 가졌다”는 말이 있음. 여성의 근로조건이 매우 낮아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필리핀을 떠나 다른 국가로 이주해 일자리를 찾고 있어, 이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과생됨. 토지와 기업의 소유가 몇몇 가문에 한정되어 있어 자원의 접근성이 제한되고, 매년 2.36%의 높은 인구증가율, 정부 부패 문제

등 구조적, 제도적 문제들을 빈곤의 원인으로 지적. 장기적으로 사회보호 정책(Social Protection Policy), 자원에 대한 접근성 증가, 도농의 소규모 기업지원, 여성네트워크 강화 등등에 집중하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함.

○ 싱가포르

- 싱가폴은 많은 부분에서 남녀평등을 이루어 교육, 보건 등에서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음. 대학의 자연과학 전공자 중 여성이 59%를 차지하고, 회계 전공자, 건축, 공학 등에서도 60%에 육박함. 평균적으로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72% 수준이지만, 25에서 29세 사이의 여성은 전문직, 고위행정직, 판매 및 서비스 부문에서 남성보다 오히려 임금이 많다는 것이 주목할 만함.
- Community Care Endowment Fund (ComCare Fund)를 통해 가족을 기반으로 하위 20%에 속하는 싱가포르인들의 자립을 돕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함.

○ 태국

- 빈곤을 철폐하는 것은 단지 기본적인 삶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과 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지적. 태국의 빈곤문제는 특히 쓰나미라는 큰 재앙을 겪은 후에 복귀하기 위한 여러 노력과 통합되었음.
- 여성재단(FFW: Foundation for Women)의 연구에 따르면 빈곤에 빠진 여성들은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가구등록증(household registration)등을 갖추지 못한 이주자, HIV 보균자 등인 경우가 많아 이들 여성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빚을 유예해주는 등의 프로그램들을 진행시키고 있음.

○ 중국

-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개도국으로서, 1인당 개간된 땅의 면적이나 다른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1980년대 농촌인구의 30.7%가 절대빈곤층이었고, 특히 서부지역이 더 심각함.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여러 빈곤감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의무교육 등 능력개발을 통해 빈곤감소를 이루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 이를 위해 빈곤감소지수(Poverty Reduction Indicator)를 개발하고, 성별을 고려한 분석을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여성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 지 확인하고 있음.

○ 한국

- 한국여성들의 교육수준, 연령별 경제활동참여율, 연금수급 등의 현실을 제시하고, 여성가구의 빈곤문제, 비정규직 노동자 중 여성비중이 높은 현실을 지적하여 한국 내 빈곤의 여성화 문제를 지적. 이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지원, 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족 지원, 보호소 확충, 커리어개발지원 등 여성정책 소개

○ 일본

- 주최국인 일본은 외무성과 JICA에서 각각 발표함. 외무성은 성주류화 (Gender Mainstreaming)를 위한 노력으로 1) ODA 정책에 양성평등적인 시각을 견지하고, 2) 성별 분석을 강화하며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3) 양성평등을 증진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지원하며, 4) 국제사회와 NG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5) 조직적, 제도적 역량강화를 주장하면서 목표로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성장, 국제문제 참여, 평화구축에 주목함.
-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목표는 중기적으로 여성의 사회지위를 향상시키고 발전에 참여기회를 늘리는 것이며, 이를 위해 기구내 직원들의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구의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양성평등의 관점을 적용함.

□ 주요 국제기구 보고

○ UNESCAP

- T. Kay UNESCAP 사회문제부장은 빈곤의 절대수치는 줄어들고 있으나 지역내 부의 격차는 증가하는 상황이며, 여성이민자의 수가 늘어가지만 이것이 아직은 정례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성별격차도 아직까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사회적 손실이 크다고 언급함.

○ ASEAN 사무처

- ASEAN은 세부 하나의 돌봄 나눔 공동체를 위한 선언(Cebu Declaration Towards One Caring and Sharing Community 2007)을 제창해 MDG (Millenium Development Goal)를 위한 결의를 재다짐하고, 특히 ASEAN 사회-문화 공동체에서 빈곤과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 지역내 여성은 경제참여율, 교육기회 등에서 아직 남성보다 열악한 위치에 처해있음.

○ ATD 4th World

-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빈곤의 문제와 절대빈곤의 문제를 구별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빈곤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단체들이 이러한 지식이 부족하다고 지적. 빈곤층이 어떤 계층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는 것이 빈곤해결의 시작이라는 시각.

□ 여성빈곤 철폐를 위한 권고문 작성

○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ASEAN +3 개국의 여성의 빈곤화를 줄이기 위한 권고문 (Recommendations on Alleviating Feminization of Poverty in ASEAN Plus Three Countries) 작성

- 제안 사항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1) 빈곤감소를 위한 정책, 2) 자료수집, 3)자원과 서비스

에 대한 접근성 확충, 4) 역량강화, 5) 국제협력과 파트너십 포함